

# 사 설

## 여성불자 조직화

조계종 포교원이 발표한 여러 가지 증년도 사업계획 가운데 특별히 주목을 끄는 분야는 '여성불자의 조직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성불자들의 재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양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여성불자 조직화 사업은 지금까지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던 우리나라 여성불교 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어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중단이 여성불자들의 조직화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불이켜보면 중단은 그 동안 중요한 포교정책의 하나로 항상 여성불자의 조직화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여성불자들을 묶어 기독교의 YWCA와 같은 단체를 만들고 여성불자들의 대사회활동의 창구로 만들자는 계획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같은 계획은 늘 불발로 끝나거나 용두사미가 되기 예사였다. 그중에는 이 사업이 이에 항목에서조차 삭제돼 잊혀지고 말았다.

여성불교운동이 이처럼 의욕에 비해 성과가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장기적 계획이 아니라 단기적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하려 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모든 사업은 성격에 따라 중장기 또는 단기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여성불자 조직화 사업은 성격상 장기사업에 해당한다. 여성불자들의 신심이 비록 대단하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조직화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중단은 '여성국' 하나 없이 이 일을 하려고 했다. 자연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은 꿈도 꾸지 못하

고 몇몇 단체는 사조직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또 한가지는 여성불자의 의식교양 사업의 부재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성불자가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수적인 면에서 여성불자들은 남성불자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한국불교를 떠받치고 있는 기반이 여성불자다.

그러나 이같은 위치가 여성불교의 수준과 비례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도리어 '차마불교' '기복불교'라는 냉소적 표현이 말해주듯 우리 나라 여성불자들의 종교활동은 사회적 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여성불자의 조직화는 우선 의식교양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의식교양 없이 구호만 외쳐서는 한두 번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나 지속적인 운동으로 연결시키기 는 어렵다. 여기에 여성불교의 한계가 있었다.

고무적인 일은 최근 들어 전국사찰에서 실시하는 '불교교양대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교리공부를 통해 바른 종교관을 확립하고 보살도 실천에 나서려는 '새로운 차마바람'이 불교 있다는 사실이다. 또 여성불자들의 평균연령도 낮아지고 학력수준도 높아져서 과거와 같은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성향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조짐의 하나다. 이러한 조건은 이제야말로 여성불자를 조직화하고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할 시기를 말해준다.

올해 포교원이 '여성불자의 조직화'를 사업목표로 설정한 것 자체가 변화된 환경과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조금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들은 의욕과 끈기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 조계종 한국불교 알리기 나섰다

조계종이 한국불교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외국인이 산사에 묵으며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또 한국불교를 해외에 알리는 영문 소식지가 발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은 외국인 한국불교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여행객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불교를 체험하여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문화에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 외국인 사찰체험 프로그램 실시 영문소식지 '로터스 랜턴' 4월 창간

포교원은 서울근교 사찰을 체험도량으로 정해 1박2일 또는 3박4일의 일정으로 참선, 예불, 발우공양, 수계 등 외국인 체험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구체적인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체험도량으로 화성 용주사와 서울 봉은사 화계사, 남양주

봉선사가 검토되고 있으며,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부는 한국불교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영문 소식지를 발간하기로 하고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양장운)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22일 논의했다. 사회부는 이 소식지의 이름은 불교

의 깨달음과 진법을 상징하는 동시에 한국불교 고유의 전통을 담은 '연등' 즉, '로터스 랜턴(Lotus Lantern)'으로 정하고 4월초 창간호를 펴낼 계획이다.

창간호에는 20쪽 분량에 연등축제 안내, 한국사찰소개-불국사, 에세이 등이 실린다. 계간으로 발행될 이 소식지는 5백부를 발행해 외국 정부의 주요 기관과 민간단체, 대학도서관,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 월탄·현호스님 등 8명 별빈 결의

### 조계종 초심호계원

조계종 호계원은 2월 23일 오후 1시 제17차 초심호계원 심리를 열고 월탄, 현호, 원학, 법일, 현소, 상문, 현근, 정우스님 등 8명의 스님에 대해 별빈(차탈도합)을 결의했다. 초심호계원위원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리에는 제소된 8명의 스님 전원이 불참했다.

호계원은 이날 결의와 관련 "정화개혁회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8명의 스님들은 이미 98년 11월 30일 승려대회 등에서 중징계가 결의된바 있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초심호계원은 3월 5일 정영스님 등 12명에 대한 심리를 하며 9일에는 현수스님 등 27명에 대한 심리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3월 2일부터 12일 사이에 50명의 스님들에 대한 등원공고를 냈다. 해종특위 위원장 범종스님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원종법에 의거해 분명하고 원칙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계원이 적법하게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 조계종 새 포교사 6~7일 품수식

조계종 신규포교사 오리엔테이션 및 품수식이 6~7일 대전 한국전력연수원에서 열린다.

지난 해 11월 실시된 포교사 고시 합격자 2백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품수식은 포교사 제도와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 어린이 청소년 군·경찰 복지 사찰·신행단체에서 활동하는 선배 포교사의 포교담과 사례발표 등의 오리엔테이션과 품수식으로 진행된다. 정성운 기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2월24일 회장 이 취임식을 갖고 종교인간 화합과 사회활동 강화를 다짐했다.

## KCRP 회장에 고산스님 취임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제5대 회장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취임식과 3대와 4대 회장 임기를 마친 김몽은신부(가톨릭 문화연구원장) 취임식이 2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필동 한국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진각종 성초통리원장, 강원종 원로목사, 김광육천도교교령, 조계종 불교교정위원장, 김성근국민회의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고산스님은 취임사에서 "하늘의 동근달이 일체의 물에 두루 비추듯 종교인평화회의는 만인을 행복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종교간의 화합과 사회봉사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안

서 김몽은 신부는 이임사를 통해 "여러 종교 대표자들이 그간 잘 도와주셔서 큰 무리없이 두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고산스님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nia.com)

## 승가대-동국대 학위수여식 가져

중앙승가대학교(총장 현성)와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가 98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가졌다. 중앙승가대는 2월 24일 오후 2시 정경관에서 84명의 문학사 학위를 배수했다. 졸업식에서 사회

## 쌍계사승가대 인가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3일 회의를 열고 쌍계사 승가대학을 정식 인가했다. 쌍계사 승가대학은 현재 학인 19명, 교수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가인가 승가대학으로 운영돼 왔다. 이은자 기자

## 복지학과 현공스님이 총무원장 상을 받았다.

동국대도 25일 오전 10시30분 중강당에서 졸업식을 갖고 학사 3,648명, 석사 439명, 박사 5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6일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은자 기자

## 통도사 행정 제재카로

### 조계종 총무원 총무회의

조계종 총무원이 제15교구본사 통도사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월 10일 총무원회의에서 통도사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를 취하기로 하고 중앙총무원 각 부서에 시행지침을 시달렸다. 총무원의 제재처치는 ▲총무부:주지임명, 사찰등록부:승적증명, 확인원 재

적증명원 등 민원서류 △기획실:통도사 특별감사 실시 △재무부:재산관련 승인 서류 △문화부:전통사찰 추천 서류 △사회부:국제관련 증명발급서류 △교육부:동원공고 △교육원:교육이수 증명 발급 서류, 행정교육 제한, 교육기관 지원금 보류, 교육기관 인가취소, 장학금 혜택제한, 상설행정교육장(취운암) 취소 △포교원:신도등록 보류 등이다. 임연태 기자

## 쌍계사 주지에 도리천스님 선출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에 도리천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쌍계사는 2월 26일 오후 1시 산중총회를 열고 고산스님의 후임에 도리천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도리천스님은 67년 범어사강원 대교과를 마친 이후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조계사

교무 해임 정사 주지 쌍계사 총무 석왕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87년 중앙선도 문단활동을 시작했다. 이등문에 작가상(88)과 법무부장관표창(88)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연태 기자

##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도원스님 임명

조계종 교육원은 2월 11일 불학연구소장에 도원스님(사진)을 임명했다. 도원스님은 76년 용주사에서 정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80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불국사 강원과 일본 대정대학을 졸업했다. 이은자 기자

은 84년과 87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하고 중앙승가대, 원광대,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은자 기자

## 도쿄 종교인 평화모임 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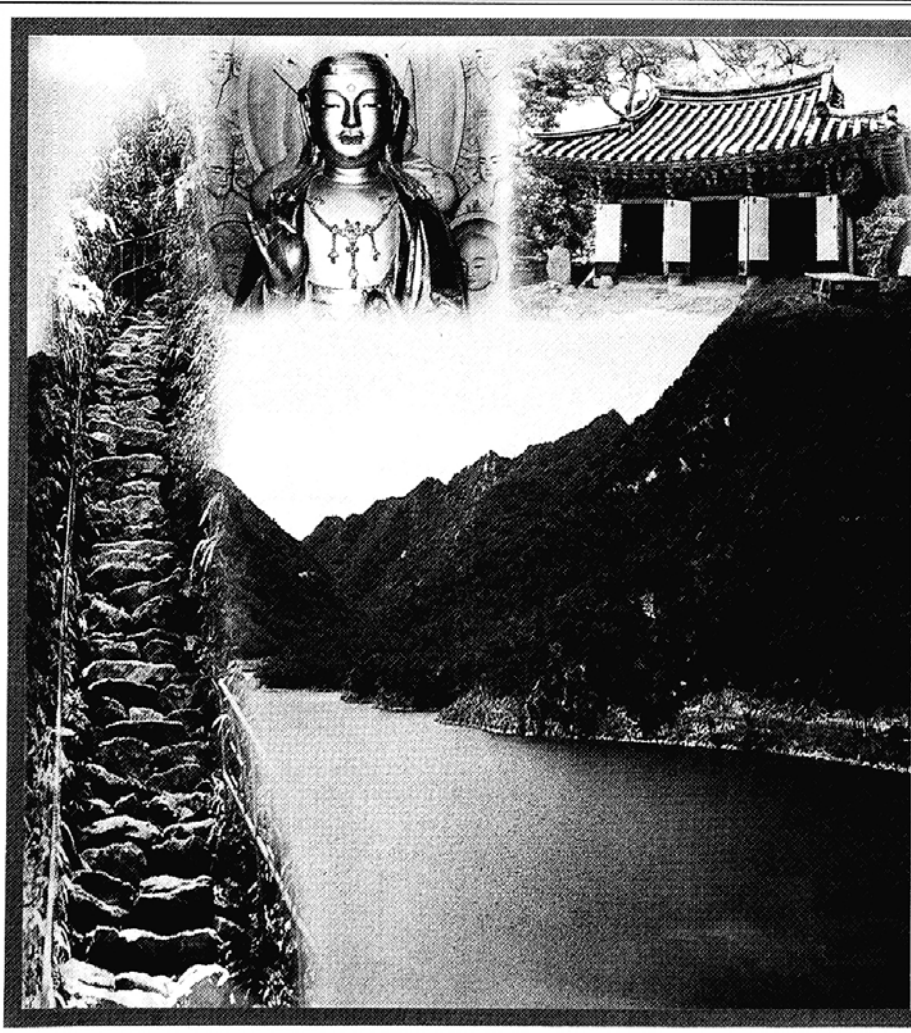
4월 북경개최 검토 3월 13일부터 일본 동경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종교인 평화모임이 북한측의 시기와 장소 변경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최근 "북한측이 도쿄모임에 대해 일정과 장소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4월경 중국 북경에서 모임을 가질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측의 일정과 장소 변경 요구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대만평** 박구원

737-8881

"오! 한국불교 좋아요"



## 정월대보름방생 기도성지 도솔암

- 한 곳에서 방생법회·보궁참배·본사참배 및 삼사순례를!! -

선운사 도솔암은 이 땅의 지장신앙의 根本도량입니다. 1423년 동안 백제문화를 지켜온 도솔암에서는 방생 및 성지순례를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천·인·지(天·人·地) 삼장(三藏) 지장보살님을 공개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기묘년 새해를 천체의 방생지 도솔제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천장 지장보살님(도솔암), 인장 지장보살님(선운사), 지지 지장보살님(창당선원)으로 삼사참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삼사 순례코스 ♣

- 도솔암 → 창당선원 → 선운사(본사)
- 도솔암 → 선운사 → 내소사(부안)
- 도솔암 → 선운사 → 개암사(부안)
- 도솔암 → 선운사 → 내장사(정읍)
- 도솔암 → 선운사 → 고인들(고창)

■ 아래와 같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무료공양 : 2,000여명분 가능
- 매표소 : 무료입장
- 주차장 : 도솔암 입구 대형버스 50대 수용
- 도솔제 : 천체의 도솔산속 청정연못 개방
- 방생물 : 물고기, 미꾸라지, 자라, 꿩 준비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禪雲寺 도솔암**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번지  
전화 (0677) 561-0075, 564-2861  
도솔암 대중일동 합장